

길림시(吉林市) 동포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서

최 용 기
(국립국어연구원 연구관)

이 글은 필자가 1996년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서울대학교의 권재일 교수와 함께 길림시(吉林市)에서 동포 한국어 교사들에게 국어 어문 규정과 국어의 특질 등을 교육한 내용을 기록한 글이다.

1. 일 정

7월 14일(일) 오전 9시 김포 공항을 출발하여 11시경(이하 현지 시간) 북경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최명룡(崔明龍) 선생이 마중 나와 있었다. 오후에는 북경 시내로 나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많았다. 신호등과 인도가 있었지만 시민들은 무단 횡단을 많이 하고 있었다. 왕부정(王府井) 신화서점(新華書店)을 찾아 갔지만 대부분 교과서나 사상서, 이념 도서뿐이었다.

7월 15일(월) 천안문 광장에 나갔다. 마우쩌둥(毛澤東) 기념관을 보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수만 명의 사람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고, 역사 박물관 전광판에 홍콩 수복일을 표시하고 있었다. 고궁(故宮) 박물관은 지름길을 가로 질러가도 한나절은 걸렸다.

7월 16일(화) 만리 장성을 관람하였다. 무수한 사람이 흑사 당하여 잠들어 있는 이 곳이 세계적인 명소로 지정되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

후에는 북경 13릉(陵) 중 하나인 정릉(定陵)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7월 17일(수) 오전 10시 항공편으로 장춘(長春)에 갔다. 공항에는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이학수(李學秀) 처장과 김성춘(金成春) 선생이 마중 나와 있었다. 오후 4시 장춘을 출발하여 길림시(吉林市)로 갔다. 길림시는 송화강(松花江)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어서인지 시민들의 표정은 밝았고, 거리는 깨끗하였다. 차를 타고 가다 신호등이 바뀌어 대기하는 곳에 대기 시간을 알려 주는 전광판이 있었다.

7월 18일(목) 오전 8시 길림시 조선족 중학교 강당에서 동포 한국어 교사 73명에게 한국어 강의를 시작하였다. 강의실에 마르크스(馬克思, Marx), 엥겔스(恩格斯, Engels), 레닌(列寧, Lenin), 마오쩌둥(毛澤東), 쑨원(孫中山)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오전에는 권 교수께서 한국어의 특징과 역사를 강의하였고, 오후에는 필자가 한국의 언어 정책과 언어 예절을 강의하였다.

7월 19일(금) 오전에는 권 교수께서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에 대하여 강의하였는데, 특히 두음 법칙과 사잇소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오후에는 필자가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7월 20일(토) 오전은 필자가 표준어 규정, 표준어와 문화어의 차이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고, 오후에는 권 교수께서 표준 발음법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다.

7월 21일(일) 오전은 권 교수께서 한국의 국어 교육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권 교수는 일부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재와 문법책을 구입하여 가져 왔다. 교재와 한글 맞춤법 강의, 훈민정음의 이해, 한국어 통사론 등 20여 권의 책을 모두 이들에게 기증하였다. 오후에는 필자가 한국의 외래어 정책과 기본 외래어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다. 또한 질문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7월 22일(월) 오전에는 송화강가에 나갔다. 가슴이 확 트이고 머리가 한없이 맑아졌다. 오후에는 동포들이 사는 영길(永吉)현 아라디(阿拉底) 농촌을 찾아 갔는데, 매우 잘 사는 부농(富農)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길림 시내로 돌아 오는데 사고가 생겼다. 편도 일차선에서 트럭이 전복되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일행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자 모두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하였는데 큰일이었다. 한 시간 후 겨우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녁 초대 시간은 오후 6시였는데 예정 시간보다 10분이 늦어 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양보의 미덕을 역설하였다. 모두 25명이 모였는데 한결같이 우리 일행을 즐겁게 하였고, 이런 연수가 자주 있기를 간곡히 요청하였다. 우리는 답사를 통해서 중국의 남녀 평등 정책과 소수 민족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정책

을 칭찬하였고, 많은 박수를 받았다.

7월 23일(화) 연변으로 갔다. 기차로 8시간 여행은 처음이다.

7월 24일(수) 오전에 연변대학을 방문하였다. 오후에는 신화서점에서 어원 사전 1권과 아동 도서 3권을 구입하였다. 시장 뒷골목에서 대학생들이 속칭 '과의장터'에서 과목을 적은 종이를 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다.

7월 25일(목) 도문(두만강)에 갔다. 국경(國境)이라는 돌 비석과 도문교 다리 하나를 두고 조선과 중국의 경계를 삼고 있었다. 두만강은 흙탕물이 흘러서 노래 가사에 나오는 푸른 물은 아니었고, 뱃사공이 노를 저을 만큼 강폭이 넓지도 않았다. 오후에는 애국 시인 윤동주가 다녔다는 용정중학교를 방문하였다. 가는 도중 노래 '선구자'에 나오는 해란강을 보았지만, 한낱 개울에 불과하였다. 용정(龍井)이란 지명이 유래한 '용두레 우물'도 둘러 보았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은 착잡하고 무겁기만 하였다.

7월 26일(금) 장백산(백두산) 등정길에 올랐다. 500여 킬로 미터를 무려 13시간 동안 강행군을 하였다. 장백산 입구에서 천지로 올라가는데, 우리 일행은 자동차로 올라갔다. 천지에 오르는 동안 장엄함과 신비함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혔고, 산세가 험하여 일행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고 있었다. 날씨는 시시각각 변하고 갑자기 기온도 뚝 떨어졌다. 20분 정도 머물렀지만 날씨는 맑게 개지 않았다. 그래도 어렵פות이 천지를 바라볼 수 있었고 저 멀리 북극 땅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내려와서는 옆길로 장백 폭포를 향하여 다시 걸어서 올라갔다. 눈을 들어 옆을 보니 병풍을 두른듯이 천지를 에워싼 백두 연봉이 아름답기만 하였다. 되돌아서 내려오다 장백산 온천수로 삶은 달걀을 맛보기도 하였다.

7월 27일(토) 심양(瀋陽)에 도착하였다.

7월 28일(일) 김포 공항에 도착하였다.

2. 주요 연수 내용

길림시의 강의 일정은 7월 18일부터 21일에 걸쳐서 하였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준비한 내용을 교육하였다. 크게 나누어 한국어의 특질, 국어 어문 규정, 언어 예절, 한국의 언어 정책과 국어 교육 과정 등 자세하게 강의하였다.

강의는 권 교수께서 한국어의 특질과 역사, 한글 맞춤법의 원리, 표준 발음법 해설, 한국의 국어 교육 과정을 강의하였다. 한국어의 특질은 언어의 기능과 본질을 먼저 설명하고, 문법적 특징을 세분하여 열거하였다. 한국어는 형태론 중심

의 언어이며 자유 어순의 언어이고, 높임법(존대법)이 발달된 언어라고 설명하였다. 한국어의 역사는 시대 구분과 한국어의 계통을 설명하였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말(언어)과 글(문자)의 규정을 설명하고, 한글 맞춤법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두음법칙 규정, 사잇소리 규정 등을 한국어의 특질과 언어의 기능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표준 발음법은 지역간의 발음차이와 방언 문제, 표준 발음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였고, 한국의 국어 교육 과정은 제6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필자는 국어 생활과 관련하여 강의를 하였는데, 우리 말의 예절,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표준어와 문화어의 차이, 한국의 언어 정책, 한국의 외래어 정책과 기본 외래어를 강의하였다. 우리 말의 예절은 세대 간, 지역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표준 화법을 정한 내용을 소개하였고,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는 현실 언어 생활을 반영하여 합리화한 내용과 일부 북한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의 중요성, 표준어의 기능, 표준어와 문화어의 어휘 비교를 하였고, 한국의 언어 정책은 정책 기본 방향, 국립국어연구원 소개, 정부 주관 한글날 행사를 소개하였다. 한국의 외래어 정책과 기본 외래어는 문화의 교류와 문물의 유입 과정에서 외래어 사용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국어 순화 내용을 일부 소개하였다.

동포 교사들은 20대에서 50대까지 분포하였으며, 강의 내용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였다. 다만, 이들에게 미안한 것은 강의 시작부터 강의가 끝나는 날까지 교재를 기다렸건만, 끝내 귀국하는 그 순간까지 도착하지 않아 전해 주지 못한 것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교재는 우리가 출발 하기 전에 항공편으로 부쳤는데, 이 곳의 세관에서 검열중이라고 했다.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었는데 이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실제 수업을 받고 보니, 한국의 어문 규정과 북한의 규정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였고, 한국의 국어 교재를 보고서 너무나 부럽다고 하였다. 일부 교사는 한국의 학교와 자매 결연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하였고, 초등학교 교사는 많은 교재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역시 두음법칙 적용 문제가 또 질문이 나와 방언과 한국어의 특질로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의 외래어 문제에 대하여 이들이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조국이 각 분야에서 일류 국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어는 세계 공용어가 될 것이라고 하여 그것은 지금 한국의 국경 목표라고 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함께 웃었다. '띄어쓰기'와 '띄여쓰기'에 대한 질문은 '되었다'와 '하였다'의 비교로 설명하였다.

3. 현지 한국어 사용 실태

중국의 길림성(吉林省)은 중국에서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길림성의 전체 인구는 2,590만 명, 면적은 18만 7,400km²이며, 농업과 자동차 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길림성에는 중국 55개 소수 민족 중 44개 민족이 거주하는데 우리 동포는 120만 명이 길림시와 장춘시 등에 몰려 있다. 소수 민족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생활 수준은 한족(漢族)보다 높으며 특히, 한·중 수교 이후 더욱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 동안 우리 동포들은 저우언라이(周恩來) 정권 이후 북한의 문화어를 표준어로 삼았다고 하였으며, 중국의 한자어도 일상 대화 속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어 배우기를 권장하고 있어 이제는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족도 한국어를 많이 배운다고 한다. 국력과 언어는 서로 순치(脣齒) 관계에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 동포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어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어찌면 50년 이상 한국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점과 그동안 북한 말을 사용하라는 정부의 지시도 언어 차이를 달라지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달라진 말을 몇 개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배정, 배치와 같은 말 : 안배(按配)
-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 : 복무원(服務員)
- 여자 종업원을 부르는 말 : 소저(小姐)
- 부부를 서로 지칭하는 말 : 애인(愛人), 동무, 선생님(특히, 남편)
- 음식, 요리를 지칭하는 말 : 채, 채소
- 빌딩, 건물을 지칭하는 말 : 대하(大廈), 대루(大樓), 층집
- 괜찮다와 같은 말 : 일없다
- 주무시다와 같은 말 : 쉬다
- 이백 원과 같은 말 : 양백 원
- 전화 걸다와 같은 말 : 전화 치다
- 보통이다와 같은 말 : 술술하다.
- 코카콜라와 같은 말 : 가구가락(可口可樂)
- 펩시콜라와 같은 말 : 백사가락(百事可樂)
- 센터와 같은 말 : 중심(中心)

이 중에서 ‘안배’라는 말과 ‘일없다’라는 말은 일상 언어 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었다. 또한, 이 곳의 남자들은 아내를 잘 돌봐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어느 회사의 세탁기 이름이 ‘애처기(愛妻機)’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체로 어문 규정은 북한의 규정을 따르고 있었고, 길림성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체적인 어문 규정도 상당히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어문 규정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운 것도 부인할 수 없었다. 특히, 한국의 외래어는 서양 말을 배우는 것과 꼭 같다고 하였다. ‘가구가락, 백사가락’처럼 이들은 외래어를 고쳐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4. 건의 사항

길림시 지역 한국어 교사들에게 교육하는 동안 느낀 점은 이들이 길림성 정부의 지시에 의해 한국의 어문 규범을 새로 배워야 하는 어떤 중압감(重壓感)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그러면서도 조국이 잘 살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을 바로 알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이들에게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의심스럽다. 앞으로 이 사업이 중국에서 동포 한국어 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중국의 실정으로 보아 소수 민족 언어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나 실무자를 먼저 교육할 필요가 있고, 되도록 이들에게는 단기 연수 과정을 신설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교육하는 동안 우리 동포 한국어 교사들은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하는 반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길림성 정부 관리는 다른 업무만 하고 있었다. 실제로 교육을 받아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포 한국어 교사들은 우리 일행에게서 한국어 연수만 받았을 뿐, 실제 수업은 길림성 정부에서 정한 어문 규정에 따라 교육을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길림성 정부 관리는 국어학이나 언어학에 관한 지식 없이 어문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사업을 담당하는 연구 부서는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강의식 교재보다는 이들이 참여하는 교재 개발이 더 실정에 맞을 것 같다. 아울러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나 연구원은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참여한다는 사전 예비 교육과 한국 어문 규정 등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파견자 각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목적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되도록 어느 지역이나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파견자는 국어 어문 규정은 물론 북한의 어문 규정, 중국의 어문 규정까지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지 수강 대상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언어 생활과도 관련되는 방송국이나 신문사 기자도 함께 교육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몇 해 전부터 한국의 KBS가 국외의 아나운서를 초청하여 발음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어문 규정을 포함하여 언어 생활 전반에 걸쳐 교육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부분 수강 대상자가 교사여서 그런지 국어 교육 과정, 학습 자료, 교과서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현지의 한국어 교육 기관이나 어문 정책 기관에 한국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용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이 제공된다면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지의 동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 외에도 이들에게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문화와 역사에 관한 지식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파견자는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